

# 가짜 사랑 속 진짜 사랑 찾기

넷플릭스 시리즈 '트렁크' 공개

'로코 장인' 공유×서현진 연기 대결...기간제 계약 부부 소재로 상처받은 두 남녀의 '구원 서사'...미스터리 요소로 긴장감 'UP'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도, 심지어 잘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부부다. 심지어 두 사람은 정원의 전 부인 이서연(정윤하)의 추적으로 결혼하게 됐다. 계약으로 성사된 결혼이자 끝이 정해진 관계다. 누군가의 눈에는 비정상적인 가짜 부부지만, 둘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렁크'가 29일 그 속의 복잡하고 섬세한 이야기를 대중 앞에 꺼내놓았다. 부유한 음악 프로듀서인 정원은 하루도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한다.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절규, 자신의 무력함이란 악몽 속에서 한 치도 성장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됐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귀를 막아 버렸을 뿐이고, 나이가 든 뒤에는 헤드폰을 끼고 음악 속에 묻혀 안식을 찾았다. 아이처럼 전 부인 서연에게 매달리지만, 돌아오는 것은 다정하게 밀어내는 손길뿐이다. 계속 자기와 만나고 싶으면 1년짜리 기간제 결혼을 하라는 무리한 요구도 한다.

인지는 결혼 직전 남자친구의 잠적으로 파혼했다. 기다림과 부정, 분노 끝에 인지는 '결혼이 역겹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결혼제도에 복수라도 하듯 VIP 기간제 결혼 서비스 회사 직원으로 일하며 지금까지 4번의 결혼생활을 마쳤다. 지금껏 만난 남편들은 대부분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이었다면, 이번에는 몸은 멀쩡하지만 정신이 위태위태한 정원을 만난다.

이 시리즈는 결혼과 관계, 상처와 관련한 여러 질문을 던진다.

정원과 인지는 가짜 부부지만, 오히려 이 거짓 관계

속에서 진짜 속내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편안함을 느낀다. 평소 불편증에 시달리던 정원이 인지와 대화 끝에 약을 먹지 않고도 불편한 소파에서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지는 한 차례 파혼으로 가슴에 깊은 흉터가 남았기에 상처투성이인 정원을 끌어안을 수 있다.

정원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던 거대한 상들리에 일부가 깨지고, 인지가 정원 위로 떨어지는 유리 파편을 막아서며 피를 뚝뚝 흘리는 장면도 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규태 PD는 제작발표회에서 "비현실적인 것들에서 오는 현실성, 가짜 속에서 진짜 사랑을 찾는 과정"이라며 "인지와 정원의 '구원 서사'를 시청자들이 각자 해석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트렁크'는 공유와 서현진이라는 두 배우의 조합만으로도 크게 주목받았다. 설레는 '로맨스 장인'인 두 배우지만, 이번에는 좀 더 온도와 조도를 낮춰 부서지기 쉬운 모호한 감정을 표현했다.

과도한 노출 장면들이 도구처럼 쓰인다는 점은 아쉽다.

특히 정원의 마음을 재보며 불안해하다가 재혼한 남편 윤지오(조이건)와 벌이는 서연의 정사 장면이 길고 과감하다.

정원의 트라우마 회상 장면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부부간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는 모습도 다소 불편하게 다가온다.

김 PD는 "베드신은 그 인물의 캐릭터나 상황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자극적인 요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정민 김고은

## 황정민·김고은 청룡 품었다

청룡영화제 남녀 주연상 수상 작품상 '서울의 봄'... '파묘'와 4관왕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천만 영화 '서울의 봄'이 올해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의 봄'은 2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남우주연상(황정민), 편집상, 최다관객상 등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황정민은 "한국에서 배우로 활동하는 모든 분이 주연상 감이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놓지 말고 계속 열심히 (연기) 하셨으면 좋겠다"면서 "(영화 산업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영화는 늘 우리 곁에 살아 숨 쉴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다른 천만 영화인 장재현 감독의 '파묘'도 감독상, 여우주연상(김고은), 미술상, 촬영조명상 등 4관왕을 차지했다. 남우조연상과 여우조연상은 '베터랑 2'의 정해인과 '로기완'의 이상희에게 각각 돌아갔다.

신인남우상은 '대도시의 사랑법'의 노상현이, 신인여우상은 '드라이브'의 박주현이 가져갔다. 배우 겸 감독 조현철은 연출 데뷔작인 '너와 나'로 신인감독상과 각본상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청룡의 여인' 김혜수를 뒤이어 새롭게 진행자로 발탁된 한지민은 이제훈과 함께 비교적 매끄럽게 시상식을 이끌었다. 1993년부터 청룡영화상 시상식 MC를 바꾼 김혜수는 지난해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 다음은 제45회 청룡영화상 수상자·수상작 명단.
- ▲ 최우수작품상 = 서울의 봄
  - ▲ 감독상 = 장재현(파묘)
  - ▲ 남우주연상 = 황정민(서울의 봄)
  - ▲ 여우주연상 = 김고은(파묘)
  - ▲ 남우조연상 = 정해인(베터랑 2)
  - ▲ 여우조연상 = 이상희(로기완)
  - ▲ 신인남우상 = 노상현(대도시의 사랑법)
  - ▲ 신인여우상 = 박주현(드라이브)
  - ▲ 신인감독상 = 조현철(너와 나)
  - ▲ 각본상 = 조현철(너와 나)
  - ▲ 음악상 = 프라이머리(대도시의 사랑법)
  - ▲ 미술상 = 서성경(파묘)
  - ▲ 기술상 = 유상섭, 장한승(베터랑 2)
  - ▲ 편집상 = 김상범(서울의 봄)
  - ▲ 촬영조명상 = 이모개, 이성환(파묘)
  - ▲ 청정원 인기스타상 = 구교환, 정해인, 임지연, 탕웨이
  - ▲ 최다관객상 = 서울의 봄
  - ▲ 단편영화상 = 유림(송지서 감독)



'트렁크' 한 장면.

"나는 당신 안 꼬셔요. 그러니까 당신도 내 앞에서 편해져요. 당신이 그냥 당신이어도 내 앞에서 괜찮다고."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한껏 움크린 채 자신을 경계하는 한정원(공유 분) 앞에서 1년짜리 계약 아내가 된 노인인(서현진)은 건조하게 말한다.

## 류승범 "배우로 다시 시작합니다"

쿠팡플레이 '가족계획' 출연 특수한 가족, 악당 처단 이야기

"배우로 활동하면서도 계속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맸어요. 운명 같은 직업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했죠. 인제야 배우라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한 것 같아요."

친형 류승완 감독의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2000)로 데뷔한 배우 류승범(사진)은 첫 작품에서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몇 년 만에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배우로 성장했다.

돌연 연기 활동을 중단하고 해외로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충무로의 대표적인 '연기파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혔는데, 정작 본인은 당시까지만 해도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

29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에서 만난 류승범은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왕성한 연기 활동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며 "탐색 끝에 배우의 길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제 선택인 만큼 책임감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출연한 작품은 이날 공개된 쿠팡플레이 새 시리즈 '가족계획'이다. 특수한 능력을 갖춘 가족이 악당들을 처단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류승범은 아내 한영수(배두나 분)밖에 모르는 '영수 바라기' 백철희 역을 맡았다. 특수 교육대에서 '인간 병기'로 훈련받은 백철희는 초인적인 격투 능력을 갖췄지만, 어딘가 어리숙하다. 아내 앞에서조차 그녀들 앞에서도 쫄쫄댄다. 류승범은 이런 백철희가 평소 그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남자, 되고 싶은 남자와 닮아서 배역을 선택했다고 했다."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